

# 여야 '저축銀 국정조사' 기싸움

조사 대상·증인 채택 등 싸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  
한나라 "10년간 문제점 조사" 민주 "현정권 비리 부각"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피해 대책과 원인을 부각시키려는 반면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현(現)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어 국정조사의 의제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벌써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 대책 마련에 주력함으로써 애당의 공세 초점을 흐리는 한편 지난 정권에서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는 원인을 짚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면서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현 정권의 부패성을 집중 부각 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금감원·감사원·국세청 등으로 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진짜 봄통이 누구인지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인 청

와대 권재진 민정수석, 정진석 정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야 간 동상이동(同床異夢)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 증인 채택,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언급한 김활식 총리와 김종창 전 감사원장의 증인 채택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가 전 감사위원회와 연관 고리 속에서 저축은행 부실을 방조했다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과 국세청, 금감원 등 권력기관 간 '검은 공생'을 집중 관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이번 국조는 검찰의 수사 부분을 제외하고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에 대해 논의키로 한 만큼 증인 채택도 이를 규명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해구제 대책을 언급한 것도 덧붙인 영남지역 피해상황이 심각한 때문이다. 애당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다가 가뜩이나 혐의해진 지역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하에서 저축은행 성장 배경을 집중 조명한다는 생각이다. 수세에 물리기보다는 역공을 펼쳐함으로써 애당의 예봉을 피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민생진보 국회' 워밍업

### 어제 의원 워크숍...한미 FTA 비준 반대 등 주도

민주당은 지난 3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6월 국회 상정을 반대하고 정부에 '재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상정 연기 및 비준 저지 방침을 정함에 따라 6월 국회 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나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한, 6월 국회를 '민생진보 국회'로 규정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서민생활 향상법(14개), 반값 등록금 실현법(5개), 무상보육 및 교육 실현법(10개), 일자리 창출 관련법(6개), 효도법(5개), 국민건강 증진법(2개) 등 '민생 희망 법안' 42개

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6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반값 등록금 주정 5천억원 포함) 편성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처할 릴레이 정책 의총과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여는 한편, 국회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세종시, LH공사 이전 등 4대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달초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 투자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밝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그 대신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 민주당은 법 제사법 위 상정까지는 수용했으나 6월 국회 처리에는 반대 입장을 정했다.

한편,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내부결속 및 국민적 관심 전환, 레임덕 가속화 방지를 위해 8월 중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청권 기반의 보수정당과 한나라당간 보수대연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나라, 학점 기준과 무관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추진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학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이 세 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액이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금 부담 완화는 등록금 인하, 장학제도,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ICL) 등의 3개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은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비합리하다는 여당의 의견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을 감안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학업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평균 B학점 이상은 무리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등록금 인하는 학점 기준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등록금 산정방식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얹어하는 것 외에도 정부 재정지원 확대, 세제 및 간접 지원 확대,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하 선도 등의 아이디어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확대와 등록금 인하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애초 2조원 정도로 추산됐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은 3조원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올 2학기부터 중단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기당 100여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 단장은 임해규 교육담당 정책위 부의장이 맡았고, 권영진·김세연·나성린·박영아·조전혁·주광덕 의원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모임은 오찬에 이어 박 전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국정 및 정치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 이대통령-박근혜 전대표 3일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일 낮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회동한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31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단독 회동하기는 지난해 8월 21일 이후 10개월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표와 그의 유럽 특사활동을 수행했던 권영세, 권경석, 이학재, 이정현 등 한나라당 의원 4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활동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월 28~5월 8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스 3개국을 방문해 외교 활동을 수행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국회의원 7명

#### '청소년지킴이 모임'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31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모임에는 한나라당 이정현·한선교·배은희 의원, 민주당 김춘진·안민석·조경태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학교폭력은 사회 문제로, 일반적 폭력행위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따돌림, 비방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오고 있다"며 "청소년지킴이 활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균질,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 '희망대장정' 잠시 접는다

#### 6월 국회서 박근혜 전 대표와 정책경쟁 올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4월 재보선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희망대장정' 일정을 일시 중단하고 6월 입시국회에 '돌인'하게 됐다.

손 대표의 국회 활동은 9년 만의 일로 각오가 남다르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특히 여권의 유력 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기획재정 위원회에서 '정책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부자감세 철회, 범인세 감세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보편적 복지'와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박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손 대표가 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간세문제를 놓고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손 대표는 민주당 당론인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범인세 감세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보편적 복지'와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박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손 대표가 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개인회생 파산면책

###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1. 전부명령의 위험(확정판결, 어음공증)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기)입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5. 자녀가 성인(만20세)에 가까울 경우

# 법인회생

### 전문직(의사, 약사, 한의사, 법인사업자) 법인회생 특별상담해드립니다

(단, 고의적인 채무발생과 재산은닉등은 사기회생 및 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

### 금산공인증개사

####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가능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형가능

####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로 코너

H.P.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 대인동삼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0X)223-1772 훈 011-602-2532  
(광주행 신분집업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신진공인증개사 (임대전문)

####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 ▶ 대지 : 263평, 신축창고53평, 사무실 26평  
건폐율 60% 유통단지
- ▶ 매매가격 : 6억2천만원

#### 고흥군 금산면 토지 매매

-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